

# 잘 나가는 수입차

올 상반기 9만4263대 판매... 전년보다 26.5% 늘어  
독일 3社 신차 경쟁 한 몫... 年 20만대 신기록 눈 앞



'벤츠 C-class'

**BMW, 연간 魔의 3만대 돌파**  
**벤츠·아우디·폭스바겐 추격전**

수입차업체가 '연간 20만대 판매'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은 9만4263대를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7만4487대보다 26.5% 증가했다. 연말로 갈수록 차량 판매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물론 연간 20만대 판매 신기록 달성도 노려볼 만하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1만여대 많은 8만2100대가 팔렸다. 특히 '독일차군단'이 폭발 동체 수입차업체의 무서운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상반기 전체 수입차 판매량에서 독일차 비중은 71.1%를 기록했다. 올해 수입차 업계로 유입된 고객 10명 가운데 7명은 독일차를 선택한 셈이다.

독일차 대표 주자인 BMW는 지난해 3만366대를 판매해 '마의 장벽'으로 여겨졌던 연간 3만대를 넘겼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폭스바겐코리아도 올해 3만대를 팔겠다고 선언했다. 아우디코리아도 2만5000대 판매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까지는 BMW가 굳건하게 1위를 지키는 가운데 나머지 독일 3사가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BMW는 상반기 2만268대를 판매해 지난해보다 21.0% 성장했다. 벤츠(1만6642대)와 폭스바겐(1만5368대), 아우디(1만3536대)의 판매 대수는 BMW에 못 미쳤지만 3사가 공동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0% 이상 급증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독일차의 선전에는 불붙은 '신차 경쟁'도 한몫을 했다. BMW는 전기차 i3를 내놔고, 벤츠는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에 이어 준중형 세단 C-클래스를 출시했다. 아우디도 소형 세단 A3와 플래그십 세단 A8을 잇따라 선보였다.

디젤차를 주력으로 내세운 독일 브랜드가 승승장구하자 디젤차 비중도 동반 상승세에 올라 상반기 디젤차 점유율은 68.3%(6만4427대)를 기록했다. 일본 브랜드로서 이례적인 성장세(213.9%)를 보인 인피니티가 디젤 엔진을 탑재한 스포츠세단 Q50을 출시하는 등 비유럽권도 디젤 열풍에 합류하는 추세다. 국내 완성차업체도 말리부 디젤(한국GM), 그랜저 디젤(현대차), SM5 디젤(르노삼성차) 등을 내놓으면서 디젤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차급별로는 '친환경·고효율 엔진'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화두로 일지를 굳힘에 따라 배기량 3000cc 미만 중소형 차량이 잘 팔렸다. 상반기 판매에서 2000cc 미만과 2000cc 이상 3000cc 미만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55.0%(5만1868대)와 33.2%(3만1286대)를 기록해 지난해 52.2%와 33.4%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3000cc 이상 4000cc 미만의 점유율은 12.1%(9009대)에서 8.8%(8301대)로 3.3%포인트 빠졌다. /연합뉴스

## “휴가철 할인해 드려요”

현대·GM·쌍용 등 차 구매시 현금·저금리 혜택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여름 성수기 차량 판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현대차는 7월 중 벨로스터·i30·i40 등 3개 차종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차량 가격을 20만~50만원 깎아주거나 할부를 선택할 경우 연 3.9% 금리 조건을 제시한다. 또 엑센트 구입시에도 연 4.9% 금리를 적용해준다. 기아차는 K7 구매시 할인폭이 6월 50만(LPG 모델)~100만원(가솔린 모델)에서 100만(LPG)~150만원(가솔린)으로 확대됐고, 하이브리드 K7 700h를 선택하면 판매가에서 50만원을 빼준다. 6월에 이어 레저용 차량(RV) 재고떨어짐 가격 인하도 지속 실시한다. 8월께 신차 출시를 앞둔 쏘렌토R은 100만원 또는 연 3.9% 금리와 6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최근 3세대 신차가 나온 구형 카니발R도 200만원을 깎아준다. 한국GM은 올란도 택시, 카마로, 스파크 전기차(EV)를 제외한 전 차종에 최소 20만원(스파크)에서 최대 100만원(올란도·캡티바·알페온)까지 가격 할인 혜택을 주는 '트린스폼 유어 서머' 캠페인을 진행한다. 트랙

스·올란도(택시 제외)·캡티바 등 RV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그늘막(타프)도 선물한다. 르노삼성자동차는 SM5 디젤 모델을 출시한 이후 판매가 추종한 가솔린과 LPG 모델에 고객들이 선호하는 옵션을 장착한 'SM5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였다. 가솔린 3개(PE·SE·LE) 등급에 크루즈 컨트롤과 스피드 리미터를 기본 적용했고, SE·LE 일반용과 장애인용에 LED 방향지시등을 포함한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를 탑재했다. SE 등급에는 17인치 알루미늄도 달아준다. LPG 모델 중 택시 고급형과 최고급형에는 옵션가 28만원인 동승석 에어백을 각각 4만원과 5만원에 제공한다. 쌍용차는 코란도 투리스모 구매 고객에게 70만원 상당의 레저용 루프박스 패키지를 사은품으로 지급하고, 일시불이나 연 6.9% 정상할부로 구매하면 여름 휴가비 20만원을 지원한다. 뉴 코란도 C와 렉스턴 W 등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 차종에 대해서는 1년간 월급을 자유 상환하도록 하고, 이후 36개월간 연 6.9% 금리로 할부를 제공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자동차 오래타기

#### 6 장마철 안전운전 요령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은 필수적이다. 빗길 안전운전요령을 알아본다.

#### 평상시보다 20~50% 감속해 시야 확보

#### 제동시 브레이크 나눠 밟아야 미끄럼 방지

◇감속운전 및 물웅덩이 피하기  
빗길에서는 시야 확보 및 제동거리 확보가 곤란하므로 20~50% 속도를 줄이고, 차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타이어 높이의 절반 이하로 물이 차는 지 확인해야 한다.

◇제동은 가볍게 수차례 실시  
제동 시 한번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말고 가볍게 여러 번 밟는다. 젖은 디스크와 패드는 자주 브레이크를 밟아 마찰열로 브레이크 계통을 말리는 것도 좋다.

◇급제동 상황이 발생하면 엔진브레이크 작동  
자동변속기(D-레인지 이외의 단수)의 단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엔진브레이크를 작동하면 제동시 미끄러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서비스센터 박원섭 과장>

### 한국GM

#### 변속기 결합

#### 2만7051대 리콜

한국GM이 변속기 마운트 결합이 드러난 스파크 2만7051대를 리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스파크 제작결함조사에서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 마운트의 결합으로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6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일부터 한국GM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변속기 마운트를 자비로 수리했다면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정부 조달물자계약 업체

## 모든 가구가 한곳에!



(주)엔에스퍼니처 광양지사 T (061)793-7704 H 010-3114-3063  
웹하드 ID : gane82 / PW : 1111  
광양시 중앙로 494-1 (마동경수장 앞)

##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효창건설(주)



효창건설(주) T (061)792-5577 H 010-3622-7755  
대표이사 송재무 위치 : 광양시 강변로 41 (광영동)